

평일의 문화 향유...내일 행사 다채

가수 조규찬 자택서 콘서트...온라인 생중계 점심 먹고 팸페라 보고...빛고을시민문화관 유·스퀘어 음악회... 연극 '장자의 꿈' 할인 광주시립미술관 '의기, 양양'전...체험 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평일에 문화향유의 기회를 갖자는 의미로 지난해 시작됐다.

올해 예산 90억원을 확보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획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시설을 찾기 힘든 이들을 위한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25일 열리는 3월의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서 눈에 띄는 건 CJ E&M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기획콘서트인 '집들이 콘서트'다.

홀수달에는 집을 상징하는 다양한 장소에서 콘서트 형식으로, 짝수달에는 강연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프로젝트다.

첫번째 행사에서는 싱어송라이터인 조규찬이 자택에서 아내 하이씨와 함께 콘서트를 진행한다. 가수 김광진과 정인 등 지인과 이웃들이 참여하며 영화 '원스'의 대표곡 등을 라이브로 들려준다. 공연 실황은 네이버 티브이캐스트를 통해 생중계한다.

내달엔 드라마 '미생'의 김원석 PD 강연회, 5월에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콘서트 행사를 열 예정이다.

지역에서도 다양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이날 점심 식사 후 직장 근처에서 즐길 수 있는 런치콘서트를 진행한다. 오후 12시2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야외광장.

남성 팸페라 그룹 'Sing&Joy'(대표 최교성)를 초청, 영화 '파파로티' 수록곡 '행복을 주는 사람', 이문세의 '붉은 노을', 이탈리아 가곡 '오솔레 미오'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음악을 팸페라로 선보인다.

남성 팸페라 그룹 'Sing&Joy'는 대중음악을 사랑하는 젊은 남성들이 모여 만든 3인조 단체다. 이번 공연에는 바리톤 김제선씨, 테너 최교성·박현씨씨도 출연한다.

관람객에게는 커피 등 음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 062-670-7945.

유·스퀘어문화관은 야외광장에서 '아름다운 유·스퀘어 음악회'를 진행한다.

광주지방경찰청과 함께 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경찰청 홍보대사인 넬라루체 중창단을 초청, 공연을 갖는다. '우정의 노래', '우리들은 미남이다', '오해피데이', '트로트 매들리' 등을 들려준다.

그밖에 극단 아트컴퍼니 원이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무



조규찬



광주문화재단 주최 '런치콘서트'에 출연하는 'Sing&Joy'.

대에 올리는 '장자의 꿈'을 4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으며 충장로 아트홀에서 공연중인 극단 '논다'의 '웃픈 수다' 역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상무 기본층은 극장에서 공연중인 뮤지컬 '서커스 피자'는 1인 4매까지 4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록전시관에서 '의기, 양양'전과 연계한 체험행사를 연다. 참여 작가 중 한 명인 김세진씨가 상록전시관 야외광장에서 '빨래를 널어드립니다'를 주제로 진행한다.

김씨는 전시에 재활용 유리나 신발, 가방 등에 프린트 된 한지를 붙여 새롭게 변신시킨 작업 '널기 좋은 날'을 전시 중이다. 이날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엽서에 쓰고 빨랫줄에 널어서 날려 보내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 6시부터는 김씨가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는 등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진행된다. 문의 062-613-7133.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오후 2시 특별전 '조선청화, 푸른빛에 물들다'와 연계해 전시 기획자인 임진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를 초대해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5시에는 '큐레이터와의 만남' 행사도 진행된다.

임 학예연구사는 이날 조선시대 청화백자의 역사적, 예술적 특징과 의미를 조명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선 철화백자 및 동화백자와의 차이와 조선 청화백자의 시대에 따른 변화와 질적인 분화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예정이다. 문의 062-570-7000.

연극 공연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매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의 경우 오후 6~8시 상영 영화를 5000원에 관람 가능하다.

참여단체와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통합정보 홈페이지(www.culture.go.kr/wday)를 참조하면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그림 읽는 詩人

함평 출신 강경호 '미술과 문학의 만남' 펴내

미술과 문학의 소통을 시도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함평 출신 강경호 시인이 펴낸 '미술과 문학의 만남'(에코미디어)은 서로 다른 장르인 미술과 문학을 통해 해석의 다양성을 제공한다. 미술작품을 소재로 쓴 시를 분석하고, 시의 텍스트가 된 미술작품을 분석한 것이다.

그동안 그리스 로마 신화나 성경을 미술작품으로 형상화한 경우는 많았다. 또한 미술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시도도 많았다. 이번처럼 미술과 시를 타자화해 분석한 경우는 이례적이며, 장르 간 소통과 융합의 시도도 앞선다.

책은 지난 6년간 계간 '시와 사람'을 통해 발표했던 글들을 모은 것이다. 저자는 김경희 '세한도', 김기창 '바보산수'와 '운주사의 석불들' 등을 시인들이 어떻게 변용하였는지를 살핀다. 또한 램브란트, 마네, 모네, 고흐, 몽크, 피카소, 모딜리아니의 그림이 시인들의 상상력과 만나 어떻게 변주되는지도 내밀하게 분석한다.



강 시인은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를 문학적으로 해석한 시인들의 상상력을 고찰했다"며 "미술작품이 변용돼 새로운 시로 형상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저자는 이번 '소리'를 주제로 한 '내 마음의 소리'(시와 사람)라는 에세이집을 펴내기도 했다. 철공소 쇠소리, 아파트 층간 소리, 뮤지컬 음악소리 현대문명이 낳은 다양한 소리를 토대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규명한다.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시인은 4권의 시집과 문학연구서 등을 펴냈다. 현재 계간 '시와 사람' 발행인 겸 주간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세월호 이후...한국 詩의 현주소

'문학들' 봄호 나와

'세월호 이후에도 시를 쓰는 것이 가능한가?' 설령 시가 읽히지 않는 시대라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문학과 시는 '사건성'의 원인이 되는 물음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문예지 '문학들' 봄호(통권 39)는 한국시의 현주소를 내밀하게 들여다보았다. 문학평론가 조재룡은 '세 마리의 눈 번, 돼지'를 주제로 김혜순 시에 드러난 정치성을 짚어보고 인하대 조각석 교수는 '말하라 그대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 '미러파'시인들의 작품에 드러워진 '안개'를 분석한다. 양경인 평론가는 "'이후'를 거절하는 시 : 고통을 읽기 위하여'를 토대로 첫 시집을 펴낸 신미나, 박지혜, 성동혁의 첫 시집에 담긴 징후를 읽어낸다.



소수자의 삶을 다룬 '이야기'들에서는 '자발적 미혼모'의 삶을 살아 가는 김연지 씨의 '여자, 딸, 엄마'의 사연을 들려준다. 기교나 수사로 포장하지 않은 진솔한 원고는 잔잔한 울림을 준다.

사물'들'에서는 김민정 시인이 사건사고를 접하고 느낀 단상을 풀어낸다. 외국문학 비평단에서는 전남대 유재홍 강사가 '문학의 존속 가능성-미셀 웰백의 '소리자'의 경우'를 모티프로 문학은 여전히 사유와 소통의 장임을 유려한 문체로 보여준다.

/박성천기자 skypark@

여고생들의 플루트 연주회

호남예술제 금상 김혜령·전남예고 이현서·고효주 등...29일 드뎡아트홀

예술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꿈나무 플루티스트들이 연주회를 갖는다. 29일 오후 4시30분 드뎡아트홀.

무대에 서는 이는 호남예술제 금상을 수상한 김혜령(광주예고 2년)을 비롯, 이현서(전남예고 2년), 고효주(전남예고 2년) 양 등 3명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도플러의 '리콜레토 판타지 듀오 콘체르토', 모차르트의 '콘체르토 2번 D장조', 베토벤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나' 등이다. 마지막 곡은 세 사람이 함께 연주하는 하이드의 '세 대의 플루트를 위한 트리오 1번'이다.



피아노 반주는 이유정씨가 맡았다. 문의 010-8625-64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늘의 신문은] 세계 명사들의 특강

신문을 읽으며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납니다
그들의 생각과 지식이 나의 논리가 됩니다
신문은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누구나 배운다
"신문은 가장 큰 학교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